

# “전남 ‘4월 저온 피해’ 지원해 달라”

### 배 1534ha·맥류 911ha 등 농작물 피해 3248ha 달해 도, 국비 76억원 요청...경영자금 추가 지원 등도 계획

올해 4월 전남 일부 지역에 발생한 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배와 단감 등 농작물 면적이 모두 3248ha(32.48km<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피해에 이어 4월 저온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도내 일부 지역 과수·밭작물 등에서 피해가 컸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최근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와 관련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저온피해 복구비는 모두 약 76억원으로, 농식품부의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확정·지원될 예정이다.

저온피해 복구비 가운데 농약대는 71억원, 50% 이상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비는 4억원이다. 도는 복구비 이외에도 재해대책 경영자금 217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경영자금 178억원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도 실시할 계획이다.

작물별 저온 피해 면적은 배 1534ha, 단감 278ha 등 과수가 전체의 71%인 2316ha로 가장 많고, 밭작물인 귀리 등 맥류가 911ha 등이다. 배는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개화 최성기)에 냉해를 입은 탓에 나무와 영암 등지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철송 전남도 식량원에과장은 "1월 한파 피해에 이어 4월 저온피해까지 겹치면서 전남의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닐하우스 설치 확대와 방상팬 설치 등 재해 피해 항구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에도 한파로 겨울배추 1857ha, 유자 866ha, 무화과 571ha, 녹차 308ha 등 총 4475ha의 피해가 발생, 복구비 148억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기서 물놀이 하면 안됩니다 안전점검특별기간인 16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석곡천에서 복구청 건설과 하수팀 직원들이 풍영정천 어린이 익사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 ‘세월호 7년’ 진도 어민 속앓이 ‘진행형’

### “인양 과정에서 생업 피해” 손실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으나,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진도의 한 어민이 “선박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 오염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대전지법에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현숙)는 16일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 주관으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박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 추산액은 5000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으나,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이미 한 차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해양방제기록 등 선체 인양 당시 유류오염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A씨는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생각해 당시 저는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했는데 방제 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택배기사, 내년부터 분류 업무 손 떼다

### ‘과로방지책’ 잠정 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며 확정적인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업점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었으나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전남대 연구팀,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2종 발견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신규 미생물 2종을 발견했다. 더구나 이 미생물은 전남대 교정내 토양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대 염수진·윤철호(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팀과 지원석(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폴리스티렌(일명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신규 미생물 2종을 발견하고, 이를 분해하는데 처음으로 작용하는 후보 효소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폴리스티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로폼의 화학용어로, 가공이 쉽고 저렴해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지만,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분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미생물의 발견이 플라스틱의 생물학적 분해와 플라스틱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의 가능성을 열면서,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군주 또한 특허 기탁을 마쳤다.

또 연구논문은 환경과학 및 공학 분야 유명 저

널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영향력 지수 9.038, 상위 3%) 5월 27일자 온라인 판에 이어, 오는 8월 15일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공동 제1저자인 전남대 김형우, 김예빈 석사과정생(생물과학·생명기술학과)과 조진희 석사과정생(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은 폴리스티렌 화학 합성과 분석, 후보 효소 발굴을 공동 연구해 신규 미생물의 폴리스티렌 분해능을 증명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C1가스리피어너리 사업, 우수신진연구사업으로 수행됐다.

한편, 연구팀은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서 유익 탄소를 섭취할 만한 서식환경이 있을 것이라 가설아래 전남대 교정내 농대 1호관과 생활관 인근 등 4곳의 후미진 곳에서 토양을 채취해 실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염수진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폐플라스틱용품의 생물학적 처리는 물론 더 나아가 이를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동구 자전거도로 정비 나선다

### 금남로4~5가역 구간 등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동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노후 자전거도로의 요철과 높낮이 차이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잦은 금남로 4~5가역 일원 약 550m 구간의 자전거·보행

자 겸용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전거 사고 예방은 물론 광주 주변 자전거도로 이용 접근성이 개선돼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보행 및 통행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